문화매일신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Seongju Office of Education

제1536호 2024/2/21/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패키지 비상대책’내놨다!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발표... 초단기 등 단계별 전략 제시

경상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①완전 돌봄 ②안심 주거 ③일·생활 균형 ④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희망이음 안심주거]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생활 균형]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나간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성 평등]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똑버스, 휠체어·유아차 동반 도민에겐 ‘그림의 떡’

수요응답형(DRT) 경기도 똑버스, 저상버스 단 10대에 불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이 2월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똑버스가 휠체어·유아차를 동반한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단 10대에 불과한 저상형 똑버스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회에 몇 안되는 뚜벅이 의원으로 똑버스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도민을 위한 똑버스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의 이동권은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똑버스는 저상형이 10대에 불과해 휠체어를 타거나 유아차를 동반하는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원님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현재 도입된 136대의 똑버스 중 저상버스로 도입된 10대는 가능한 선에서 모두 도입한 것이다”라며, “올해 똑버스를 261대로 늘릴 계획인데 어떤 모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사님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애초부터 저상형으로의 개조 여부를 차량 도입단계부터 검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후, “관련해서 지사께서 분명한 계획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분명한 이행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정질문 종료 뒤 일각으로부터 제기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 확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 확대도 필요하지만, 저상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애통합사회 구축 차원에서 중요하고, 이에 더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똑버스의 저상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탄소중립·비용절감 등을 위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의 통근버스 통합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근버스 통합운영은 노선의 다양화, 주차문제 해결, 화석연료 절감이 가능하다며 경기융합타운 입주 기관의 통근버스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친환경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에 630억

양식생산 지원·재해 예방·유망품종 육성 등 집중

전라남도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예산 630억 원을 들여 양식 생산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시설 자동화, 첨단화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재해 예방사업과 지역 특화품종을 집중 육성해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함으로써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분야별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과 양식 생산지원 등 13개 사업에 3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사료 급이 자동화 시스템,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어가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 또 영광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기반시설 공사비로 60억 원을 투입해 참조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 창출에도 힘쓸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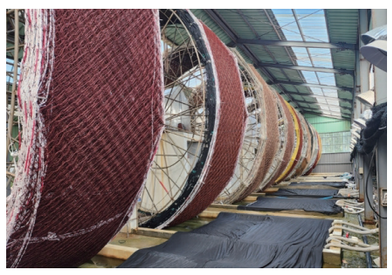
안정적 물김 생산을 위해 물김 채취망과 김 활성처리제를 비롯해 김 육상채묘시설과 냉동망 시설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에도 14억을 신규 투입해 김 산업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조류 부산물과 패각 부산물이 사료 원료와 첨가제로 활용되도록 예산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재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6개 사업, 153억 원을 투입해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조 발생 대응 및 이상수온 대응 장비, 백신·면역증강제를 보급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해 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2억 원을 들여 시장성이 높은 고소득 유망품종 집중 육성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새우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곰피·조기·바리류 등 종자 구입비 지원과 함께 유휴수면을 활용한 창업어장 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위생적인 생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예산 50억 원을 신규 투입해 굴 까기 작업장을 현대화함으로써 굴 수출 확대 등 전략품목 육성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양식 기반 구축을 통해 고품질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양식에 접목해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양식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시동

서울시는 지난해 2023년도 감사원 정기감사의 지적 사항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에 머무른 점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을 계기로 시정 전반에 획기적인 분위기 쇄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 직원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1차로 청렴 교육을 강화해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2024년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청렴”을 화두로 제시했으며, 이에 전 직원의 관심은 “청렴”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노조 역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해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청렴 슬로건·삼행시 공모를 하는 등 1월부터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는 2월 16일 노조 간부 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예정이나, 내부 직원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우선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은 강의 횟수가 적어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존재했으며, “청렴”에 집중해 직무교육의 역할은 부족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의 횟수를 대폭 늘리고, 교육 내용은 기관별 직무에 맞는 “맞춤형 사례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관리 및 건설공사 수행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안전교육’을 2월 14일부터 시작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사례 중심의 알찬 교육 내용이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됐고, 다른 동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감사위원회 내부 강사가 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청렴 교육과 더불어 시설 관리 및 공사 분야 관련 지적사례를 함께 소개하며,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 구성’과 ‘직무수행에 도움 여부’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월 16일 전공노 서울시청지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청렴 교육 역시 금품수수가 아닌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마주칠 수 있는 부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청렴교육 강화는 서울시 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의 시작점이다, 전 직원들이 충실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도개선과 부패인식 개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울시청으로 거듭나고, 최종적으로 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미래교육정책TF 발족

"미래교실 구상 위한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정책연구"

서울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 주도 하에 구성된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미래교육TF는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 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여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강남구 교육지원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와 미래교육TF 설립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개념이 기존 시험 중심 입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연구단체는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모색한다.

우종혁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강남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남구는 교육1번지의 위상에 걸맞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교육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예산집행을 위한 연구개발에"착수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정책TF에는 우종혁 의원 외에도 간사 이동호 의원, 한윤수 의원, 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이성수 의원, 노애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관내 교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희/기자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 추진

부산시의회는 SNS 소통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인"부름이"의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름이"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의회상징-SNS 소통캐릭터 이용신청 안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24. 2. 26.(월) ~ '24. 4. 30.(화)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한층 더 부산시 의회는 SNS 소통 캐릭터'부름이'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개방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희태/기자

달서구,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5일 달서구 지역 시의원을 초청해 구정 주요 현안 및 관내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의회 이영애 부의장 등 지역 시의원 7명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 및 사업부서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 업무와 구정현안을 공유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달서구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달서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올해 각종 주요 업무와 사업을 펼치는 많은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달서구의 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9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등 기획조정실 산하 부서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홍종철 부위원장(국민의힘, 광교1·2)은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아직 석 달 정도 남았으니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2023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며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예산재정과에 "수원시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또는 경기도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수원시 필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등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을 지적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도비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받은 도비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 며 "사업목적 달성 후에도 도비 예산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계속되는 수원시의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총선 종료 후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밀접히 협의해 수원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예산재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수원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절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비효율 사업 폐지와 사업 성과분석 등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한 재정정비 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와 매칭되는 도비예산에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현재 수원시의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독려에 집중되어 있다"며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 등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들을 지원하는 방책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준숙 위원장(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소관부서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친 뒤, 23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남도의회, 대학생 정책지원관 인턴십 본격 시동

인턴십 운영 정보·노하우 공유 및 인턴 학생 면담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와 입법담당관실은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 경남도의회가 여름방학 중에 시행 계획인 대학생 인턴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4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 정보·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정재욱·한상현 의원과 입법담당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과 정책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의 인턴십 운영 관련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서울시의회 인턴십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인턴십 참여의원·인턴 면담 등이 진행됐다.

정재욱 회장은 "이번 벤치마킹를 통해 청년 대학생들이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정책연구과제 수행, 멘토(정책지원관)-멘티(인턴) 체계 등 인턴십 운영에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만큼, 이러한 선진사례를 잘 접목시켜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상현 의원은 "참여 인턴들의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참관 등 지방의회 회기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 의회·대학간 업무협약 체결, 4월 의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5월 의회·대학의 인턴선발, 6월 인턴십 운영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대학 간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주제를 고려한 참여 대학의 추천 학생 중에서 인턴을 선발하여 방학기간 약 6주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협업을 통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재현/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 누구를 위한 신년음악회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

광주, 청양 등에서 주민 대상 선 예매 기간 별도 편성한 것과 대조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19일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 누구를 위한 신년음악회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철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개최된 아트밸리 아산 2024년 신년음악회는 사업비 9,930만 원을 들여 진행된 성공적인 행사로 알려졌으나 아산시민을 위한 신년음악회에 정작 아산시민들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사전에 라포엠 팬클럽에 신년음악회 소식이 전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예매는 불과 10분 만에 매진됐다"며 "예매부터 아산시민을 위한 배려와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예매를 통해 시민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청양군은 현장예매와 온라인 예매를 통해 군민들을 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라며, 이와 대조적으로 "아산시 신년음악회는 라포엠 팬클럽을 위한 무료공연에 불과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아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아산시민이 없는 잔치를 벌이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음을 아산시의 미래를 꿈꾸는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하며 "무료 공연만이 아닌, 아산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지 말고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용"이라며 "귀를 열고 지혜를 들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원호/기자

아산시의회 ASANCITY COUNCIL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임진각 관광발전과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촉구

도정질문 통해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정비와 발전 △경기도 소유 학교부지의 합리적 처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간 임시주차장 매각 문제와 임진각 관광지의 시설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인근에 관광객이 숙박할만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소유하는 학교부지의 경기도교육청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유지보수 예산과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정부, 지자체 등이 소유하는 학교부지 문제의 원활한 처리 △학교 설립과 관련한 제도개선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활성화 △연수원·교육원 시설의 재구조화를 위한 복합화 사업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먼저, 안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학교부지의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이 43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설립 절차 개선을 위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업무의 주관부서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잡힌 교육을 계획적·현실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경기도교육청의 연수원·교육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같은 '연수원 시설 복합화 사업'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 계획은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원활하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경기도 내 전면적 무상보육·무상교육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개최된 제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하위인 0.7명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온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채영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부모분담행사비 연 20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10만5천 원, 입학준비금 연 10만원 등 최대 280만 원의 부모부담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약 7천6백 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한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연간 19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고 인천광역시는 만 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다"라며 경기도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1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의원 아침 청렴특강 실시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인식 제고하는 계기 마련

경기도의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고전에서 배우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한상덕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정탁 금지 등 다소 무거운 주제였으나, 고전 사례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청중의 공감과 호응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염종현(더민주·부천1) 의장은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을 고려해 아침 8시부터 교육을 시작했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청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청렴 교육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연중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경기도의회 아침경제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임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박물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박물관에서 개최된 '경기도박물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임광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박물관협회는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발전과 박물관·미술관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도록 큰 기여를 했다"며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며, 경기도박물관협회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권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협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예산 수립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원 연구회 최초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노력해왔다.

김범상/기자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소방관 19명 경기도의회 방문

체험형 의정홍보관 '경기마루'에서 의정 이해도 높여

필리핀 메트로마닐라(Metro Manila) 소속 소방관들이 19일 국내 의정활동의 내용과 체계를 직접 체험하고자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소방관들은 본회의를 방청하고, 체험형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관람하며 의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오후 도의회를 찾은 메트로마닐라 소방본부 소속 나훔태로자(Nahum B Terroza) 준장과 로넬 말테조(Ronel M Maltezo) 대령 등 소방관 19명은 1시간 여 동안 의회 시설을 견학했다.

소방관들은 먼저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의 '의회 소방안전 지원정책 소개'를 청취한 뒤, 본회의장에 입장해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경기소방시스템에 대한 안 위원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깊게 듣는 한편, 본회의장 내부를 살펴보고 의사 일정이 진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관람하며 흥미를 보였다.

이어 청사 1층에 있는 경기마루로 자리를 옮긴 소방관들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홍보시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마루 견학일정은 ▲인포메이션 코먼스: 미디어파사드(건물벽 스크린)를 통한 도의회 홍보영상 시청 ▲디지털 체험관: 도의회 역사와 성장기록 관람 ▲본회의 체험관: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 체험 순으로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대형 터치모니터로 구성된 '아카이브 체험 테이블'에 손을 대고 조작하며 의회 상징물과 변천사, 친선교류 등의 주요 의정정보를 검색했다.

또, 모형과 사진, 영상으로 도의회 청사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필리핀 소방관들이 가장 큰 흥미를 보인 일정은 '모의 본회의'였다. 이들은 '해외 소방장비 지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표결하며 실제 본회의와 같은 방식의 모의 본회의에 적극 참여했다.

나훔태로자 준장은 "이번 견학으로 경기소방시스템과 한국의 지방의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즐거운 체험 과정을 통해 선진 소방시설 외에도 여러모로 벤치마킹할 점이 많음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첨단 기술과 다양한 연출방식을 도입해 도의회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라며 "도민은 물론, 해외 방문객들도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마루는 2022년 3월31일 개관한 체험형 의정홍보관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의 필수 관람코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중국 웨이팡시(Wéifāng) 공무원, 케냐 바링고주(州) 대표단, 대만 국제청소년회의소 관계자 등 다수의 해외 방문객이 경기마루를 관람했으며, 1년 간 총 관람객 수는 2만4천 여 명(일평균 99명)에 달한다.

견학·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도민참여→견학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D-200, 국제공모전 접수 시작

한국도자재단이 2월 19일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D-200일에 맞춰 '국제공모전'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전 세계 작가들의 주요 작품 발표 및 공개경쟁을 통해 도자예술의 동시대 흐름을 교류하고 예술적 담론과 도자예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 교류 무대다. 국내외 신진 작가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작가 1,184명이 참가, 2,503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제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재단, 2월 19일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D-200일에 맞춰 '국제공모전' 온라인 접수 시작

모집 대상은 흙(도자)을 주재료로 사용하거나 소재로 한 전통·전승도자, 실용도자, 조형도자, 설치, 미디어, 음향 등의 작품으로 신작 또는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않은 작품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진 도예 또는 도예 관련 작업을 하는 자로 연령, 국적 제한 없이 참가자별 최대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8일까지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작품 설명서, 작품 디지털 이미지 5컷, 작가 노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작품 이미지 온라인 심사는 한국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되며 1차 선정작에 한해 2차 실물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비엔날레 기간 중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수상자는 ▲KICB 대상(1명) 6천만 원 ▲KICB 우수상(7명) 각 1천만 원 ▲KICB 전통상(2명) 각 1천만 원 ▲KICB 상(50명) 등 총 60명을 선정해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 등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난 1월 임미선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주제 선정과 더불어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EIP(Event Identity Program) 개발에 나섰다. EIP(Event Identity Program)란 주제를 형상화하는 상징물로 포스터와 시그니처, 로고 등을 뜻한다. 비엔날레의 주제와 EIP는 오는 4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비엔날레는 전 세계 모든 도예인과 도민이 함께 즐기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12회를 맞이하는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개최된다. 비엔날레는 ▲주제전(이천 경기도자미술관) ▲국제공모전(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아름다운우리도자기공모전(광주 경기도자박물관) ▲국제도자 학술회의·세미나 및 국제창작 워크숍 등 국제 전시학술 교류 행사와 함께 온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예술페스티벌행사 ▲경기 곳곳 협력 행사 ▲마켓행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ㄹ

김범상/기자

여주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학교 선정

여주시는 지난 2월 16일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지원대상 학교로 대신고등학교와 여주제일고등학교를 선정했다.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과 함께 이충우 여주시장의 교육분야 대표 공약사항으로, 명문학교로 도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여주시 관내 9개 고등학교 중 4개교가 응모했으며, 행정, 교육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이 우수한 2개 학교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신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면접 특강, 정시 및 방과후 특강, 열린 기숙사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여주제일고등학교는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커뮤니팅 매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금번 선정된 대신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와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여강고등학교는 매년 1억원씩 3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문학교로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2024 통합사례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지난해 통합사례관리 963가구에 사례관리사업비 총 1억 9500만 원 지원

수원시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촘촘한 통합사례관리 실천 계획을 담은 '2024년 통합사례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구축해 복합적 복지혜택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상자를 상담·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추진 목표로 설정한 '2024년 통합사례관리 종합 추진계획'은 ▲통합사례 관리 운영 지원 ▲사례관리 체계구축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사례관리 지원 시책 등 5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세부 사업은 동 통합사례관리 운영 모니터링·컨설팅, 빅데이터 활용 발굴 위기가구 사례관리 연계 강화,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통합사례관리 대상 963가구를 신규 발굴해 사례관리사업비(의료비·생활지원비·주거환경개선비 등) 총 1억 95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안전·정신 문제 등이 있는 복합 고난도 사례 23가구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사례관리 전문기관)에 사례를 상정해 복지영역별 전문가(법률, 금융, 의료 등)로 구성된 솔루션회의를 거쳐 전문 슈퍼비전을 제공받았고, 민·관 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현재 21개 동에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수요자 중심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자 복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전문사례관리기관(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과 협력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합사례관리의 최종 목표는 복합적 복지혜택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사례관리를 위한 민·관 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중심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 추진

사우디 알울라왕립위원회, 사업 협의 위해 올 상반기 성남시 방문 예정

성남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왕립위원회(RCU, The Royal Commission for AlUla)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RCU가 사우디 북서부에 위치한 알울라 지역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조할 수 있는 성남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우디아바리아 RCU의 요청으로 이뤄진 영상회의에서 시는 그동안 구축 및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교통, 안전 및 복지, 환경, 경제 및 문화, 행정, 기반 시설 등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심 드론 배송 실증사업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 구축과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구축(ITS)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초대규모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기술 실증서비스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비롯해 10여 개 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RCU는 성남시 사례를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성남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RCU와 올 상반기 내 성남시 방문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11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했다. 당시 홍보부스인 성남관을 방문한 RCU 관계자가 성남시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높게 평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회의가 성사됐다.

신 시장은 "스마트시티 기술은 4차산업 특별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시의 기술과 경험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성남형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이 해외 도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RCU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하며, 우수한 자연 및 문화적 전통을 지닌 알울라 지역을 보존 및 개발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왕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첨단산업 동향 파악 차 스페인'MWC 2024'현장 방문

2024 MWC 참관해 반도체 글로벌 신기술 흐름 파악…세비야와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고, 세비야 등 스페인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시 대표단 6명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한다.

이 시장은 MWC에서 펼쳐지는 첨단산업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비야 시를 찾아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와 함께 빌바오, 바르셀로나 등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바르셀로나 컨벤션 기업인 NEBEXT에서는 컨벤션·MICE 산업 관련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이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대 최대 규모의 'Horeca(Hotel, Restaurant, Cafe)' 산업 박람회인 'HIP(Hospitality Innovation Planet)' 참관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KOTRA 마드리드무역관,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용인시 기업의 현지 진출과 스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훈 주스페인 한국 대사는 이 시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일엔 세비야 시를 방문해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페인 남부의 중심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발달한 세비야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명예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사전 교섭을 해왔다.

이 시장은 23일에는 빌바오를 방문해 빌바오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분야 사례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철강산업 쇠퇴로 한때 쇠락의 길을 걸었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건립한 뒤 관광객이 대거 몰려 지역 경제가 살아난 곳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선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로인해 경영학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 도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의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시장은 27일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세계 3대 IT 전시회인 'MWC 2024'를 참관하고 용인관, 통합한국관을 둘러보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MWC 2024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도 신기술을 선보이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MWC에는 삼성전자가 참가해 반도체 전용 부스를 꾸려 AI 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과 파운드리 부문 등의 기술을 중점 소개한다. SK하이닉스도 별도 부스를 통해 글로벌 IT, 스마트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인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126만평)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226만평)를 조성하는 이들 두 기업의 관계자들과도 만나 글로벌 반도체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바르셀로나 시 산하 경제개발기관인 액티바(Activa)와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을 시찰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가장 큰 B2B 대상 전시회 기획과 개최 전문기업 'NEBEXT' 본사를 방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컨벤션·MICE (산업과 관련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계획 중인 컨벤션·MICE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 방문을 통해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을 찾고,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스페인 도시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음식점 모집

광주시는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선착순 20개소이며 기존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음식점 위생컨설팅 및 청소비 지원'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식품위생과(7층)에 방문하거나 팩스(031-760-1457)로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업소는 70만원 범위에서 주방 및 객석 등의 청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760-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들이 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필리핀 케손시(市) 대표단, 고양특례시 방문

이동환 시장"국제적 스마트도시 변모 위한 상호협력 기대"

20일 지안 카를로 지 소토(Gian Sotto) 부시장을 포함한 필리핀 케손시(市) 대표단이 고양특례시에 방문했다.

케손시(市) 부시장 외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고양특례시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필리핀 케손시(市)는 인구 31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계획도시로써 필리핀 국회, 국책 은행, 주요 정부 청사가 위치해 있다.

이번 방문에는 로물로 빅터 주한 필리핀대사관 총영사와 박정숙 세계스마트시티기구(WgGO) 사무총장도 함께 했으며, 고양 인재교육원에서 CCTV 통합관제, IoT기반의 노후시설물 모니터링,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리빙랩 등 고양특례시의 다양한 스마트 조성 우수사례를 브리핑 받았다.

이어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드론앵커센터와 행신동에 소재한 스마트 안전센터를 방문해 고양특례시의 최첨단 관제 현황 및 긴급상황 신속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체험했다.

지안카를로 지 소토 케손시 부시장은 "첨단 스마트도시 고양특례시의 현재와 미래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어 대단히 좋았다. 앞으로 케손시의 발전에 있어 좋은 모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고양특례시는 케손시를 비롯해 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통해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스마트도시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국제적 스마트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화성시,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2024년 상반기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 3월 10일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2024년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화성시와 경기도,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이 함께 추진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종합상담, 취·창업 지원, 커뮤니티(동아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성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50세(1974년생) 이상 69세(1955년생) 이하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모집과정은 14개 과정으로 ▲카페창업 커피바리스타 2급 ▲꽃차 소믈리에 2급 ▲펫푸드 전문가 양성과정 ▲미술심리상담사 2급 ▲노인전문상담사 자격과정 등 7개의 자격증 과정과 7개의 인문과정이다.

교육 장소는 협성대학교이며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교육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29일까지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신규와 기존 참여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 연계한 중장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상반기 개강식은 3월 19일 협성대학교에서 개최되며,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나이듦에 관하여', '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대한민국 최고 안전 도시' 하남시, 2023 지역 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

하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산정해 공개한 '2023년 지역 안전지수' 결과, 하남시는 화재·자살·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년도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 2023년 6월~9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모든 분야에서 1·2등급 받은 하남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를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하남시는 6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1개 등급이 상승하고, 4개 분야는 전년 등급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염병'은 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며 최고 등급을 받았고, '범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화재'(1등급), '자살'(1등급), '교통사고'(2등급), '생활안전'(2등급)은 전년도와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하남시가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방시설물 확충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운영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대응 안전망 구축·운영 등 다양한 시정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하남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상황실을 운영(24시간)하고,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보급 및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취약가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하남시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자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자살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 설치,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등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117개소) 및 종사자 감염관리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129개소) 운영 및 상시 감시체계 가동, 감염병대응 지역사회의료협의체 운영, 감염병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어린이 대상 감염병예방교육(손씻기) 등 신종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보호망을 구축했다.

이현재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시정 노력을 통해 2023년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동행 지원

12개 분야 354억원 투입…전년 대비 5.7% 증가

전라남도는 올해 354억 원을 들여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적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5.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잘 보내도록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72억 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11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35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1억 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25억 원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친구·동료 만나기, 음악·미술·문화활동, 요리, 운동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18세부터 64세까지 월 132시간에서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 준비 및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 등의 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750명 늘어난 4천386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금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연 960시간에서 연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수행기관도 1개소에서 동·서부권 2개소로 확대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발달장애인이 학대, 성범죄, 경제적 착취 등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수사 의뢰 및 보호조치 등 장애인 권리를 지키도록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지원 서비스를 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도록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보성군, 영암군 2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특성, 장애인 및 가족의 하루 일과, 주된 돌봄자의 특성,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힘들 때 도움을 주도록 도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현재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은 총 1만 3천815명이며, 지적 장애인 1만 2천613명, 자폐 장애인 1천202명이다.

박종배/기자

'필드는 청춘을 싣고' 나주시, 남평·안창 총 63홀 파크골프장 조성 박차

남평 36홀, 안창27홀 파크골프장 내년 9월 완공 목표

전라남도 나주시가 남녀노소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남평 지석천, 안창동 영산강 유휴부지에 총 63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오는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파크골프(park golf)는 1984년 일본 홋가이도에서 최초 시작된 생활 스포츠다. 단어 의미 그대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형태의 놀이로 공을 쳐 최소 타수로 잔디 위 홀에 넣으면 승리하는 방식이다.

경기방식은 골프와 유사하지만 여러 개의 골프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골프와 차별화된다. 채 한 개로 샷과 퍼터를 다할 수 있어 골프에 비해 장비가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필드가 넓지 않아 관절에 무리 없이 걸어 다니며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고 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노년층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파크골프장은 남평 지석천(서산리 93번지, 남석리 702번지 일원)은 36홀, 안창동(안창동 446번지 일원)은 27홀 등 전체 면적 10만7000㎡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0억원(도비18억·시비42억)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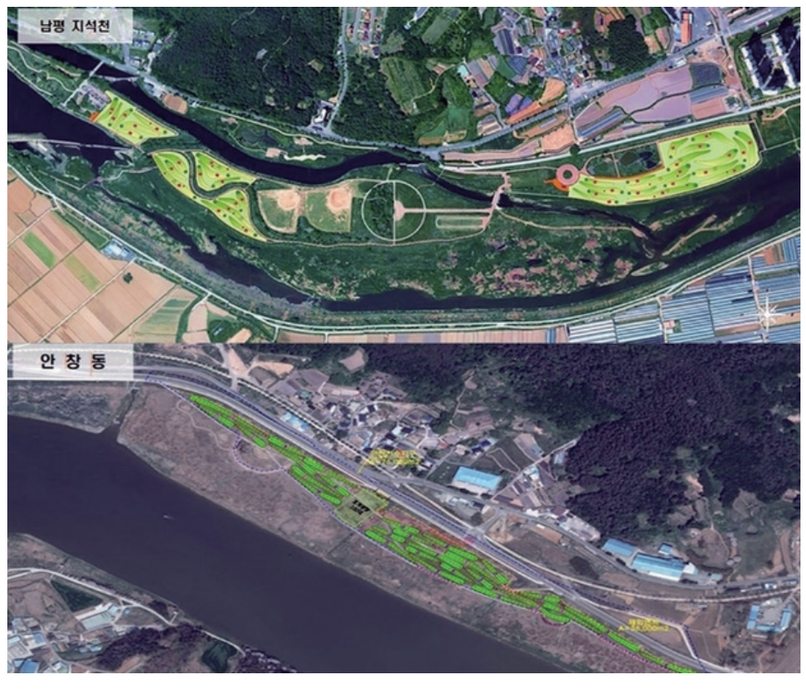
시는 지난해 8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8월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실수요자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곳 지역 주민협의체와 나주시파크골프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5일엔 시의회 현안사업 보고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나주시는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기존 사이클·사격·육상·스쿼시·야구(클럽 대항) 등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 지석천과 영산강 일원은 명품 파크골프장에 걸맞은 천혜의 생태 경관을 갖추고 있어 파크골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파크골프장이 건강과 친목을 챙길 수 있는 주민 간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시민 행복 책임진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고금리 시대 시민 행복을 위한 안성맞춤 사업으로 호평

남원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지금 같은 불황에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민의 행복을 책임질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고금리 시대 부담 덜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을 조기 마감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이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혼인신고 7년이내의 부부와 만19~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남원시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신혼부부 및 청년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하여 주거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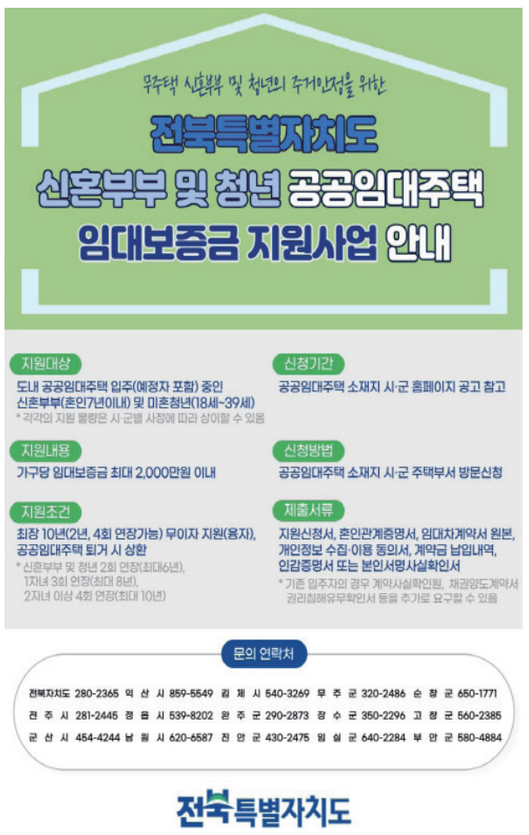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와 만18~39세의 청년 무주택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은 남원시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3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큰 호응을 얻어 추가로 2차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가 7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우리 남원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특산품(적송이 버섯) 육성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원활한 생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

전남 함평군은 19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유한회사 자연인 등 개발자 간에 함평군 특산품(적송이 버섯)의 원활한 생산, 육성,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한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전철 (유)자연인 대표와 개발자로서 석주원 씨가 참석해 적송이 버섯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 협약으로 함평군은 적송이 버섯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상품 생산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유)자연인은 판로개척에 힘쓰는 한편 개발자는 적송이 버섯 품종의 함평군 농가 우선보급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본 MOU체결로 특산품(적송이 버섯) 재배를 통해 함평군 거주농가의 소득증대 및 청년 농가 육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 드림스타트 아동·부모 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용돈관리 체험

순천시는 지난 17일 드림스타트 아동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념과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경제교육은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에서 전액 후원하여 금융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여 명의 아동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보드게임과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용돈관리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용돈을 받으면 며칠이 안돼 다 써버렸으나, 이제 설날 받은 세뱃돈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배우게 됐다"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금융 경제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KSD나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유년기 시절부터 합리적인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자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현재 270명의 아동에게 4개 분야 37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강진청자축제 성공 역량 결집, 기관단체장협의회 열려

제52회 강진청자축제가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강진군 기관·단제장들이 지난 19일 협의회를 열고 청자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박상년 강진경찰서장, 이병삼 강진교육지원청장, 최기정 강진소방서장 등 65명이 참석했으며 제52회 강진청자축제에 대한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단체들의 협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진청자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관·사회단체장들은 해당 기관과 연계해 현수막 게첨 등 축제 홍보를 실시하고, 개막식을 비롯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매결연단체 관광객 초청, 유관기관과 단체회원 축제장에서 총회 및 모임 갖기,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활용을 통한 가족, 친지 초청 등 기관 단체장들이 성공적 축제 추진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호용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장은 "청자축제에 강진군 관내 기관·단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강진이 도약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행될 여러 축제와 군정 주요 사업에 기관·단체장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전북특별자치도-㈜풀무원-익산시, 푸드테크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참여 등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실현에 뜻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풀무원과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에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풀무원, 익산시는 19일 서울 풀무원 본사에서 '푸드테크 식물성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와 정헌율 익산시 시장,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이 참석했으며,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 방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식량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문제 등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대체식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익산시, ㈜풀무원은 식물성 대체식품분야에서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실증 및 사업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2022년 8월 지속가능한 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을 론칭하고 창사 39년만에 처음으로 가수 이효리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미래먹거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식품분야 글로벌 톱5기업*(국내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푸드테크분야 신기술 및 글로벌 동향 정보 공유 등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얼라이언스 소속 중소기업, 농생명기관 간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상생협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의 대기업-중소기업-농가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해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은 미래지향적 식품분야의 대표기업으로 2022년 8월 지속가능한 식품 전문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을 론칭하고 창사 39년만에 처음으로 가수 이효리를 모델로 발탁하는 등 미래먹거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식품분야 글로벌 톱5기업*(국내1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2024년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및 출정식 개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합동 입단 및 출정식 개최

목포시가 지난 19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재계약 선수 및 신규 영입 선수의 환영 및 선전을 기원하는 입단 및 출정식을 개최했다.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종목은 축구(34명), 하키(20명), 육상(8명), 복싱(3명) 등으로 65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입단식은 선수단 소개 및 팀별 올해 각오 발표,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박홍률 목포시장의 격려사와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 했다.

이날 참석한 선수단들은 "자랑스러운 목포인의 긍지와 신념을 갖고 올해도 부상과 물의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고 각오를 다졌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해마다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등에서 더 큰 기량을 선보였다.

조덕제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은 K3리그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고 제104회 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키팀도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의 성과를 얻고 육상팀 박서진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전국체전에서 5연패를 달성했다.

여자 포환던지기 정소은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올해도 선수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오는 3월 2일 여주FC와 경기를 시작으로 3월 30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울산시민축구단과 K3리그 홈개막전을 펼친다.

올해 2024년 K3리그는 오는 11월 2일까지 총 30라운드(홈.원정 각각 15경기)로 진행되며, 목포시청 축구팀은 지난해 준우승의 여세를 몰아 올해도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또한, 하키를 비롯해 다른 종목의 선수단도 제105회 전국체전 등의 대회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목포시 소속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목포시를 널리 알리고 최고의 경기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진도군, 미래 수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어가 중심의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추진 박차

전국 최대 김 양식어장…친환경 국제 인증(ASC-MSC) 추진 박차

'전국 최대 김 양식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진도군은 지난해 5월부터 미래 수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어가를 중심으로 청정 외해 김 양식어장에 올해 10월 친환경 국제인증(ASC인증) 취득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 :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은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무역(IDH)에서 공동으로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과밀화로 인한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진도군은 김 면허지 113건(16,128ha)로 전국 최대 김 양식어장을 소유하고 있고 2023년산 김 생산량 95,225톤, 조수입 1,153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전복섬영어조합법인 71어가와 2023년 9월 전국 최초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조도 전복양식어가 3어가가 인증을 취득했다.

군은 7억 9,000달러의 수출 성과를 낸 효자품목인 김 양식에 대해 급변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김 양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미래 수산업 경영을 이끌어 나갈 청년 어가를 중심으로 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성과는 청정해역 진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랑이다"며 "올해는 진도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김 생산, 가공, 유통 체계 구축으로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보성군, '제5기 군민 SNS 서포터즈' 모집

보성군정 시책 및 정책, 축제 행사 등 역량 있는 'SNS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정보공유 확산과 주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전략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군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보성군은 오는 2월 27일까지 '제5기 군민 SNS 서포터즈(홍보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민 SNS 서포터즈'는 2024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 활동하면서, 축제·행사 홍보, 지역 명소와 맛집 소개다. 또한,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홍보한다.

월별 활동 게시 건수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활동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이며,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 홍보맨이라는 사명감으로 즐겁게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보성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달력 높은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기 군민 SNS 서포터즈' 선정자에게는 개별 연락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영/기자

완도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해양치유 활성화' 업무 협약

'국민 건강 증진' 중요성 공유,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협조 체계 구축

완도군은 2월 20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완도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신우철 군수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박종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데서 이루어졌으며,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해양치유산업 홍보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소속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회의 등 장소 활용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건강검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우철 군수는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산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협약이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완도 해양치유가 협회 직원들의 심신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종석 본부장은 "청정한 해양환경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면서 "협회 직원을 비롯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 이후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해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딸라소풀과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 등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춘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개관한 지 두 달여 만에 1만 5천여 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양영율/기자

신안군! 친환경 왕새우 배합사료 공장건립 사업비 60억 확보

친환경 왕새우 양식산업 활성화와 양식어가 경영비 절감 기대

신안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왕새우 전용 배합사료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건립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매년 보완·개선을 통해 4년 만에 이룬 성과로, 큰 의미가 있다.

신안군은 연간 10,000여 톤의 왕새우 양식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 사료 사용량의 57%를 차지하고, 비용은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양식 어가들 양식 경영비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속해서 원자재 및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예년 대비 약 20% 인상)으로 어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6년 공장건립이 완공되면 어가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왕새우 전용 사료 공급 기반 구축은 우리 군이 왕새우 산업 집적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단지 내 새우 종자 전용 시설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400억), 왕새우 산지 거점 유통센터(60억)와 연계하여, 왕새우 거점 단지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왕새우 양식은 23년 기준 268어가(836ha)에서 3,000여 톤(500억 원)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2024년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위해 앞장선다는 각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일 안동 CM파크 그레이스 홀에서 '정기총회 및 제22대·제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경북 도내 여성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취임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이임 도 여협회장 활동소개, 감사공로패 전달, 단체기 이양, 신임 임원단 소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하는 제22대 김경애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여성단체협의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원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새롭게 취임하는 이복선 회장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회장은 지난 2년간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힌남노 태풍과 예천 수해지역 복구에 온 힘을 다했다.

제23대 신임 이복선 회장은 "내실있는 활동으로 경상북도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로 이끌겠다"며 "특히,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김경애 회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제23대 이복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경북여협이 경북 내 여성단체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변화와 주역의 여성들이 또 한번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80년도 창립된 이후 현재 23개 도단위 회원단체와 22개 시군 협동단체로 구성되어, 매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등 여성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7만여 명의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 개최

2.17, 2.19.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 대학·종합병원장, 소방재난본부 등 참석한 가운데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 기능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당부

부산시는 지난 17일과 19일 시청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공의 사직 예정 등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관계기관들과 면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최근 의료계 동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의 비상진료대책도 함께 공유했다.

2월 17일 회의는 오전 10시 개최됐으며, 회의에는 대학병원장과 부산의료원장이 참석했다.

2월 19일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됐으며, 회의에는 종합병원장들과 소방재난본부가 참석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병원장들에게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경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그리고 중등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함께했다.

한편, 시는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에 기반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의료계의 동향 등을 상시 파악 중에 있다.

공공의료기관 4곳과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또는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이 마련한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독려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 및 구.군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비상진료 협조를 구했다"라며, "전공의 등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도 중증 및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우선 가까운 동네 병.의원 등을 이용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대구미래 50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 내년 국비확보 목표 대구8조 4천억 원 / TK신공항 건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사업 국비 반영 추진

대구광역시는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의 '25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 4천억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 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올해 확보액인 8조 1,587억 원에서 2,400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한 투자사업의 목표액도 올해 확보액 4조 751억 원에서 1,200억 원 증액한 4조 2,000억 원으로 정했다.

2월 16일까지 집계한 투자사업 기준 대구광역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4조 4천억 원으로 신청 대비 반영률을 감안했을 때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다.

이날 국비 전략 보고회에서는 신청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로 전년 대비 신청액의 5% 이상 증액 신청을 목표로 잡고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TK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 ▲달빛철도 건설사업(총 4조 5,158억 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국비 신청액 증액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 7,382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총 1조 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총 3,600억 원)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과 연계사업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광역시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2월 말까지 추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고 3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4월에 국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처안 편성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정부예산 국회 의결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행정·경제 양 부시장 중심의 투톱(Two-Top) 체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해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위기와 번영의 갈림길에 선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들이 발굴되고, 이 사업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65세 이상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 실시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65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를 받아 이동검진 차량을 통한 흉부 엑스선 촬영 후 실시간 원격판독이 이뤄지며 유소견자의 경우 추가로 객담(가래)검사를 시행하여 결핵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특히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기침,가래 등 감염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예방차원의 검진이 필요하다.

이번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도 충분히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 검진을 지속 추진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청송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수비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개최

영양군 수비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19일 수비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과 의원, 소방공무원, 영양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임하는 조희석 수비전담 의용소방대장에게는 공로패를, 취임하는 최용욱 수비전담 의용소방대장에게는 임명장을 전달했고, 이어서 안동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의 격력사와 오도창 영양군수의 축사가 진행됐다.

최용욱 신임 의용소방대장은 '산불, 주택화재와 같은 지역에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후배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시며 잘 이끌어 주신 조희석 의용소방대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수비전담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취임하는 의용소방대장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달하는 한편, "바쁜 생업을 뒤로 하고,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는 의용소방대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활동 담당 지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주민과의 약속! 민선 8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직자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 열어

봉화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선 8기 박현국 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눈높이 정보제공 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달 25일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6개 분야, 72개 공약사업을 점검했으며, 공약실천계획서를 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일/기자

경북도, 전남도와 농업인 전문교육 교류 첫 시작!

두 지역 간 특화작물 위주 이론과 현장 교육 교차 진행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 확대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지난 19일 농업교육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❶농업인 교육과정 교류 운영 ❷교육훈련 정보교류 및 상호자문 ❸교육콘텐츠 공유 등 농업교육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 도의 비교우위 작목을 대상으로 주요 영농시기에 농업인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론과 현장 교육을 받도록 진행한다.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7월에 전남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포도 재배 기술 교육을 경북에서 실시하고, 10월에는 경북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 기술 교육을 전남에서 한다.

경북도의 경우 평균 기온이 지난 45년간 0.63℃ 상승해 아열대기후로 변화되는 양상이고, 농작물 재배패턴도 변화해 아열대 작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경북도 내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은 46ha로 2020년 34.7ha에 비해 약 12ha 늘어났고, 재배 시군도 18개 시군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만감류에 대한 전문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포도 재배면적은 269ha로 새로운 재배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북 포도 전문가의 재배 기술 교육과 현장 체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경북-전남 간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교차 교육은 새롭고 선진화된 재배 기술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숭실대·문경대·경상북도·문경시'MOU 체결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협약식 개최

문경시는 지난 2월 19일 '숭실대-문경대-경상북도-문경시'가 한자리에 모여 MOU를 체결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정환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추진위 공동위원장, 오정현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신대섭 남북학원 이사장, 신영국 문경대학교 총장이 함께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지역산업 인재 육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한 숭실대학교와 문경대학교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지역주도 대학지원사업이다.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서 대학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화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조명된다. 앞으로 긴밀한 상호 협력과 정책 고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덕실 이사, 박영립이사가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외 도의원, 황재용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도 관계자들도 협약식에 참석하여 MOU체결에 힘을 보탰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오늘 협약은 우리시의 미래를 밝혀줄 뜻깊은 서약"으로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이자 교육생태계가 급변하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고등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경시와 경상북도, 의회와 모든 시민의 염원을 담아 문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경성유행가 – 판을 나온 소리' 공연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모 사업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선정되어 국립국악원 주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성유행가 – 판을 나온 소리'가 다가오는 3월 8일 19시 30분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경성유행가 – 판을 나온 소리'는 100여 년 전 최신 기술인 유성기 녹음을 통해 보존되고 국립국악원이 복원을 거친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악 공연이다.

당시의 유행가는 유성기 녹음을 통해 음반으로 제작되어 대중에게 유통됐다. 당시 유행한 음악으로는 경기민요, 가야금병창, 서도민요, 판소리 등의 다양한 우리 소리가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의 민속악단이 우리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국악원은 우리 음악을 보존하고 국민이 국악을 접하고 즐기며 국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 민속악단은 국악의 연주,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고음반의 존재로서 전해진 우리의 옛 음악을 직접 들을 기회이다. 특히 이번 공연의 국악은 우리 고유의 국악인 민요, 판소리에 서양음악 및 트로트의 영향이 섞인 신민요 스타일의 국악을 무대화한 공연으로 오래된 국악들과는 다른 스타일의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더욱 귀중한 기회다.

안동은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그런 안동시에 걸맞은 공연으로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우리 국악을 지역민들이 경험하고 우리 전통음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좋은 공연이 될 것이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시

영덕군,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시

영덕군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발대식을 지난 19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7명은 안전교육을 마친 후 6월 말까지 약 5개월간 관내 읍·면 곳곳에 배치돼 꽃길 조성사업, 하천변 산책로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장에 투입되며, 사업유형에 따라 1일 3 부터 6시간씩 근무해 시간당 9,860원의 임금과 1일 교통비 5,000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날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장순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의 사례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법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영덕군은 근로 참여자들에게 근무복과 모자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사업장 수시 점검 등을 안내해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충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의 참여자 중에는 고령인 분이 적잖이 계셔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여 군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참가 선수 격려

주낙영 시장, 19일 화랑FC, 한수원FC 뛰고 있는 경기장 찾아 선수들 응원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9일 '2024 GOLDEN City 경주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경주 스마트 에어돔'을 찾아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4 GOLDEN City 경주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경주에서 열렸다.

경상북도축구협회와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주시에서 올해 첫 유치한 대회로 전국 U-12 56팀과 U-11 52팀, 1700여 명이 참가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참가팀인 화랑FC와 한수원FC가 경기를 펼치는 스마트에어돔과 경주축구공원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어린 선수들을 인솔해 함께 경기장을 찾은 학부모들과 코칭 스태프들과 안전한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유치한 대회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이 경주에서 불편함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어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즐겁고 신나게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축구·야구·태권도 동계훈련에 이어 이번 '2024 GOLDEN City 경주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유치로 관광비수기 시즌 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스포츠 인프라 홍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타용/기자

울진군,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개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논의

울진군은 17일 죽변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울진군 해양수산과, 죽변면, 앵커조직, 지역협의체 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가지 유형 중 유형II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은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주요 사업으로는 앵커조직 운영을 통한 사회혁신프로그램 추진,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항시설 정비, 어촌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이번 지역협의체에서는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기본계획 수립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죽변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협의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가축전염병 사각지대에도 입체적 방역활동 추진

의성군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이후에도 드론을 활용한 기피제 살포와 광역차단 울타리 주변 경광등 추가 설치 등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군은 야생 멧돼지 양성 폐사체가 발견된 안평면 마을 주변 6km 구간에 드론을 활용한 기피제를 살포 완료했으며, 점곡면에서 안사면까지 총연장 35km 구간에 설치된 광역차단 울타리의 점검도 시행했다.

또한, 양돈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10km 이내 양돈농가 3개소에 대한 농장 진출입로 및 주변도로와 하천에 대한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기피제 배부와 경광등을 추가 설치했다.

드론을 이용한 방역 활동을 지켜본 인근 마을주민들은 "겨우내 먹이를 찾아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야생 멧돼지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꼼꼼하게 기피제를 살포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피제 공중살포 작업으로 민원 발생을 우려했으나,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본인 마을 주변에도 드론을 활용한 방역 활동을 요청해 왔다"라며, "우리 군민들의 빛나는 협조로 AI와 ASF의 종식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5월 15일까지

영주시는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5월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소각행위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임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2개부서 합동으로 2인 1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3월 중에는 경상북도와 합동점검이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의 야외소각행위, 산림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다. 특히,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마을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병행해 마을쓰레기 일제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경북도, 집단행동에 대비 의료공백 없도록 발벗고 나선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본부 확대·운영

경북도는 대형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병원 근무 중단이 임박해짐에 따라 도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선제 대응하고자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도 및 22개 시군에서 비상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나, 19일부터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안전행정실·대변인실·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환동해지역본부 5개 실국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 비상진료대책반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및 필수 의료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이송·전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30개소)에서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전문의 당직근무 명령과 함께 환자 쏠림에 대비하여 중증 응급 수술 관련 비상근무조를 별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평일 2시간 연장근무 및 토요일 정상근무 실시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상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의료계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도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등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규 신청 접수

중위 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생 연간 10만 원 지원

통영시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4인 기준 401만 939원) 가구 초·중·고 학생이며, 학생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 카드(구 여민동락 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은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남도 교육지원 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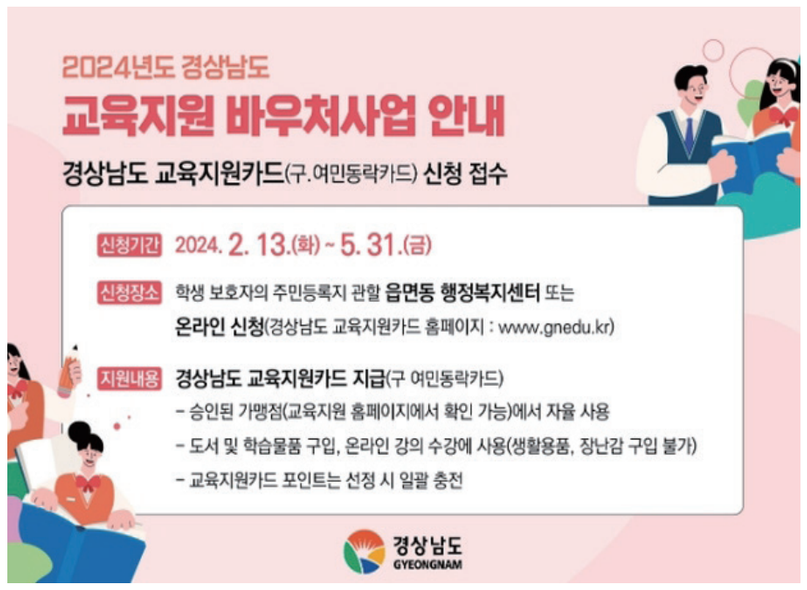
선정된 학생들은 11월 30일까지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승인 가맹점에서 학습 교재 또는 온라인 학습 수강권 구매 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현황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영시는 지역 서점 2곳(강남서점, 봄날의 책방)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한편, 2023년 기존 대상자는 신청 자격 요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선정되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영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준/기자



부산시 2023년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 발표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했으며, 오존을 제외하고 농도 감소 추세 보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한 '2023년 대기오염도 조사'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6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을 대상으로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역내 도시대기 28곳, 도로변 4곳, 총 32곳의 대기환경측정망이 운영 중이다.

2023년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 연평균 농도는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했으며, 오존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농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연평균 농도는 ▲미세먼지 31 μg/m3(기준 50 이하) ▲초미세먼지 16 μg/m3(기준 15 이하) ▲오존 0.0327 ppm(8시간 기준 0.06 이하) ▲아황산가스 0.0027 ppm(기준 0.02 이하) ▲일산화탄소 0.32 ppm(8시간 기준 9 이하) ▲이산화질소 0.0141 ppm(기준 0.03 이하)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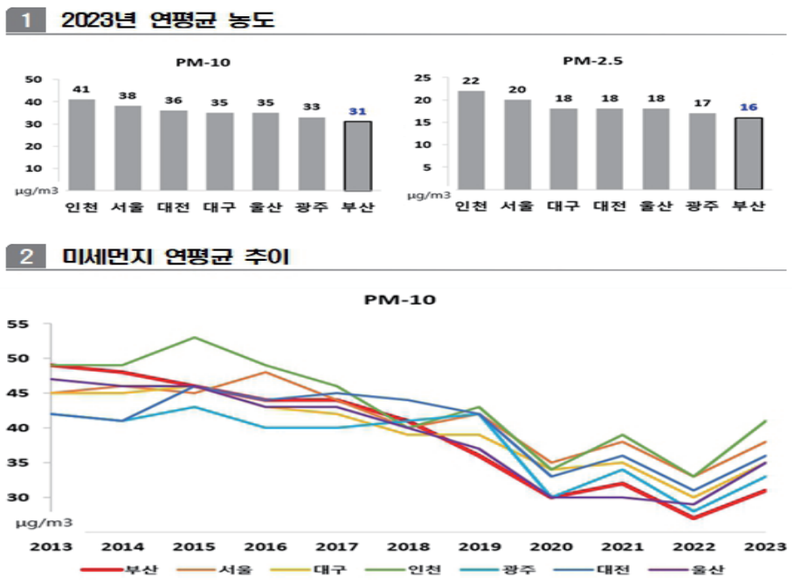
10년간 농도 추세는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존은 증가하거나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는 선박 황함량 배출량 저감 대책 및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시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 상시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구미시, 도내 최다 12개소 마을돌봄터 운영… 아동 친화도시 총력

지역별 균형있는 돌봄체계 구축, 부모 안심 환경 조성

구미시는 다함께돌봄센터 도내 최다 12개소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365일 24시간 아동의 권익과 특성을 존중하는 공공대응체계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019년 도량마을돌봄터를 시작으로 경북 도내 최다인 10개소의 마을돌봄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균형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구미시립 산동도서관 내 '산동 마을돌봄터'개소를 앞두고 있다.

상모사곡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부속동 1층에 7월 개소를 목표로 조성중인 구미시 12호점 '신나는놀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정원 49명(상시돌봄 15, 일시돌봄 34)의 경북 도내 최대 규모(512m²)로 조성될 계획이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영역별 50여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으로 꿈을 키우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7개소 1,300여 명의 이용 아동에게 인성 기반 4대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동들의 쉼터, 놀터,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 등 아동의 권익과 특성을 존중하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사회보장 빅데이터(44종)를 활용한 위기의심아동 가정방문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보호아동의 권익과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와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건강·심리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보호계획수립, 보호조치 변경, 추가 서비스 제공 등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돌봄 공백해소, 취약계층 아동 지원,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운영 등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대구광역시, '제17기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식' 개최

국내 최고 수준의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17년간 총 709명 배출

대구광역시는 2월 19일 '제17기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44명에 대한 수료식을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 박경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외식산업최고 총동창회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이수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및 경북대학교 총장 표창패를 수여하고 모든 교육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교육생 모집을 거쳐 총 16주간 진행된 본 교육과정은 외식관련 대학교수, 외식창업 및 마케팅 전문가 등 우수한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돼 외식산업 경영전략 및 마케팅 노하우 등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외식업 CEO들의 역량 강화 및 외식업 최신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명실공히 지역 외식업계 최고 수준의 경영자로 거듭나도록 기여했다.

또한, 수료생들은 교육기간 중에도 지역아동센터 봉사, 연탄 봉사활동, 독거노인 기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썼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지역 외식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작된 '대구시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이 실질적으로 외식경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시 구룡포도서관 상반기 유아&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모집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20일부터 선착순 접수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이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독서 진흥을 위해 '상반기 유아&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야물야물 그림책 놀이'와 어린이 대상 2개 강좌 '보드게임 독서회', '부루마불 세계여행 탐험대' 등이다.

야물야물 그림책 놀이(6~7세)는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그림책과 책놀이를 통해 감수성과 창의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보드게임 독서회(초등 1~3학년)는 독서 토론과 보드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독서회이며, 폭넓은 독서활동으로 표현력·감성 친화력·종합사고력 증진을 위한 내용이다.

부루마불 세계여행 탐험대(초등 3~5학년)는 내가 직접 부루마불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단계별 제작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문화강좌신청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구룡포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타용/기자

성동구, 아동이 소리내어 만들어 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6대 영역별 150여개 사업 추진

서울 성동구가 아동이 소리내어 함께 만들어 가는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성동구는 지난 2018년 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은 후, 2022년 5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재인증을 받으며 아동친화 6대 영역별(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는 전년도에 추진한 141개의 아동친화 사업 이외에 10여 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으며, ▲'무지개 어린이꿈공원 조성' 사업 ▲'아동권리 시민강사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통한 전문 아동권리 시민강사 인력pool 구성 ▲'어린이 과학

놀이터' 운영 ▲ '송정 청소년 스터디카페 개소' 등을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아동이 직접 아동정책을 고안해 내는 '성동아동정책 원탁토론회' 개최 ▲성동구 대표 아동 참여기구인 '제6기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노후 어린이공원 개선사업 모니터링 활동 등 아동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수한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인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이 참여하고 다양한 아동친화사업에 아이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으로 아동이 행복힌 아동친화도시 성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도심 속 숲에서 뛰어놀자…영등포구, '유아숲 체험원' 정기 이용기관 모집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울림반' 신설

영등포구가 영등포공원에 위치한 아이들 전용 숲 체험 공간인 '유아숲 체험원'의 정기 이용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아숲 체험원은 도시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곳으로, 도심 속에 위치해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숲 놀이터이다.

2016년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는 경사 놀이대, 흙 놀이터, 물놀이장 놀이터 등의 놀이 기구와 등나무 의자 등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200여 명의 이용객들이 '유아숲 체험원'을 찾아 계절별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했다.

지난 10월에는 제10회 '둥개둥개 아이들과 놀숲 쉼숲'이란 주제로 가족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서커스, 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과, ▲미세먼지 저감과 식물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화분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여 60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해 함께 뛰놀며 힐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구는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 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의 지도 아래 흙, 나무, 곤충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놀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 유아들과 비장애 유아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어울림반'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숲체험이 처음인 기관은 유아숲지도사 주도 하에 진행되는 '기본숲 체험반'에 참여 가능하고, 숲체험 경험이 있거나 기관 내 자체 유아숲 지도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자율숲 체험반'을 이용하면 된다.

숲 체험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9일까지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3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 속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며 "유아숲 체험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초구, 23일 정월대보름 축제 열어...달에 소원빌고 액운도 훨훨

액운 날리는 '달집태우기'와 소원등 띄우기 전통 재현, 제기차기·윷놀이·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즐기며 세시풍속 되새겨

서울 서초구는 2024 갑진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제15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양재천 영동1교 하부에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서초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양재권 3개동(양재1,2,내곡동)이 함께 준비하는 전통행사로 올해는 양재2동이 주관하고 양재1동,내곡동이 힘을 모은다. * 2023년은 내곡동 주관

행사는 매년 3,000여명의 주민들이 양재천에 모여 새해 첫 보름달에 소망을 빌고, 다채로운 전통놀이를 즐기는 등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달집태우기'다. 나무와 짚을 이용, 5미터 높이로 쌓은 달집에 주민들의 소망이 적힌 소원지를 걸고, 달이 뜨면 점화를 시작한다. 타오르는 달집과 함께 근심 걱정을 훨훨 날려 보내고 좋은 복만 깃들기를 바라는 전통 의식이다. 달집태우기와 함께 앞뒤로 이어지는 풍물놀이, 불꽃놀이로 축제의 흥겨움은 배가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구는 풍성한 놀거리와 먹거리도 준비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양재1·2·내곡 동 대항 제기차기·윷놀이 대회로 지역주민 화합을 다지고, 각 부스에서는 쥐불놀이, 투호, 널뛰기, 소원등 띄우기 등 전통놀이와 풍속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먹거리 장터에서는 오곡밥, 나물 등 대보름 음식과 달고나, 붕어빵 등 추억의 간식이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너스톤 국제학교 어린이 합창, 임두례 국악예술단, 가수 김채영, 양재동, 송민경과 영동농협 풍물놀이패 등 다양한 공연은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한편, 구는 안전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LED 쥐불놀이로 민속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서초경찰서, 서초소방서, 양재119안전센터와 함께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현장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도심에서 보기 힘든 '달집태우기', 전통문화 체험은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새해 첫 보름달을 함께 보며 구민 모두의 소망과 안녕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서초 SEOCHO
신나는변화푸른서초

강원도 "특별자치도 이끌어 갈 핵심리더 양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2024년'제21기 핵심리더과정'입교식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선도할 중견 핵심리더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은 2월 19일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제21기 핵심리더과정'입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21회를 맞는 핵심리더과정은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년 과정으로 작년까지 1,248명이 수료하여 핵심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도 제21기 핵심리더과정은 81명(도 24, 시군 57)을 선발하여 이날 입교식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총 42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식과 소양 함양을 위해 4대 추진분야 (핵심가치 공유 및 실천역량 함양, 변화대응형 직무역량 강화, 리더십 함양 및 소통능력 제고, 맞춤교육 및 자기개발 도모) 교과 과정으로 운영된다.

최승극 도 공무원교육원장은"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실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철/기자

아산시, '이순신 관광 굿즈 개발 공모전' 개최

아산시와 (재)아산문화재단은 '2024년 이순신 관광 굿즈 개발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 이순신관광브랜딩의 일환으로 아산을 이순신 관광 도시로 브랜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진행된다.

공모 굿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며, 이순신 상징을 담은 제품이어야 한다. 응모는 국내 사업자 또는 법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다.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1차 심사 통과자는 4월 4일까지 견본품을 제출처에 방문 또는 택배로 제출한다. 수상작은 4월 16일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 가능한 작품 수는 한 업체 당 5점으로 제한된다.

공모전 상금은 대상(1작품) 1,500만원, 금상(2작품) 1,000만 원, 은상(5작품) 400만 원이며, 시상금은 수상작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아산시 관광진흥과 충효애 TF팀(041-530-6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아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굿즈는 아산의 이순신 관광 홍보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순신 상징을 담은 독창적인 작품이 응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재고물품 4900만개…'폐업 위기'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

도,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 상환 유예 및 공공기관 등 수요처 확보 노력

충남도가 '폐업 위기'에 놓인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5곳(아산 3, 서산 2)이 운영 중이며, 이들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 물량은 4920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배달 및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사용금지 대상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우산 비닐까지 확대했다.

당시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고,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납품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11월 7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정부 정책 변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 지원을 위해 지원자금 상환유예 및 종이빨대 재고 소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에서 지원한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이 추가 대출 없이 직원 급여와 공장 월세 납입이 가능해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쌓여 있는 재고 물량은 도·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전문점 30곳과 휴게음식점 8350곳에 종이빨대 구매를 협조·독려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소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 시행 촉구, 종이빨대 환경표지인증 대상 도입 등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플라스틱빨대 대체품 연구개발(R&D) 사업 반영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종이빨대 환경표지인증 대상 도입 등 환경기술산업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도민분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태백시는 오는 20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태백형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복지 등을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 시스템이다.

태백시는 지역주민, 민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생활밀착형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해결방안을 모색으로 태백형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태백시의 도시문제를 공유하고 오는 27일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2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생활밀착형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주민관점 디지털 솔루션 도출을 통해 향후 태백형 스마트시티의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봉화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출생수당… 국가 지원 적극 건의해야”

국고 확보활동·해빙기 안전과 여름철 재해대책 등 집중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시군과 연계해 발표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의 세부 시행계획을 잘 세우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끌어 출생률을 올리고, 특히 도에서부터 돌봄문화를 선도해 모범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시급한 저출생 시대, 출생수당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반을 닦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도 출생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특히 “도에서부터 육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맘 편하게 다니는 육아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드는 등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일 2시간 돌봄시간을 6~8세 자녀를 둔 직원까지로 확대하고, 특별휴가 대상도 늘림으로써 모범적인 돌봄문화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정원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며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지도자급이다. 현장에 복귀해 도민 건강과 환자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가 사실상 결정되고, 최근 순천서 국내 유일 민간 단 조립장인 발사체 제작센터도 착공했다”며 “국가산단이 예정보다 앞당겨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핵심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고흥군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고흥~나로 국도 15호선 확장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국고 확보와 관련해선 “국고 신규사업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했는데, 부처 예산안 편성단계인 5월 말까지 국고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또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가 반영되는 핵심 타당성 용역사업 및 예타 사업의 통과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언급했다.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점검에 대해선 “최근 겨울비가 130~140mm나 내리면서 위험 요소가 늘어난 만큼 해빙기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며 “여기에 더해 여름철 폭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해대책 추진에 나서 중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기자

관악구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봄철 산행 즐기세요~'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오는 5월 15월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 예방, 진화활동에 본격 돌입

추운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많은 주민들이 산을 찾는다. 그러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한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면적의 46.82%가 녹지지역인 만큼 철저한 산불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관악구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먼저 구는 기상상태 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기관별 임무 수행 숙달을 위한 ‘합동 진화훈련’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장비 정비와 인력 운영에도 힘쓴다. 진화장비, 통신장비, 산불소화시설 등 진화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강성원/기자

대구광역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총력

시, 구.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가동(2.6.~)

대구광역시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와 9개 구·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의료계 상황모니터링과 더불어 공공·응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8개 구·군 보건소는 평일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비상진료를 실시하고(군위군 24시간 운영중) ▲지역 5개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 연장, 전공의 공백시 전문의 당직체계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21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인력 확충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 전공의 공백이 우려되는 6개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집중을 위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2차병원과 증상별 전문병원으로 분산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9일 응급의료기관별 대책회의, 응급의료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센터 비상운영대책을 논의했으며, 진료공백 협력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지역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하여 비상진료대책 협의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문 여는 병의원 현황 및 운영시간, 진료과목별 병원 현황을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하게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대구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구시의사회와 잘 협의하여 지역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서울교통공사,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 도와드려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 2022년부터 지속 확대 중… 작년 대비 74% 확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승강기 탑승을 도와주는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 확대 운영된다. 지하철 내 이동 약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전단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2년 8개 역사 65명, 2023년에는 20개 역 282명 규모로 늘어났고, 올해는 작년 대비 74% 늘어난 491명의 인원이 지하철 승강기 안전을 꼼꼼하게 살핀다.

안전단은 2022년부터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공사와 개발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작됐다.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시니어의 경력 ·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노인의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안전단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안전한 승강기 탑승을 돕고 이용자 안전계도, 역 이용 안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가 주요 업무다. 주요 혼잡 시간대에는 승강기 이용 승객 질서유지에 나선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작동 중지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안전단 근무자들은 승강기 옆에서 근무하면서 넘어짐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승객이 넘어졌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작동 중인 상태라면,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 계속 넘어지고 구르게 되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공사와 개발원은 본격적인 근무 투입 전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안전단을 대상으로 승강기 기본교육(법, 구조 등), 승강기 응급조치 요령, 승강기 사고사례, 고객서비스 교육 등 직무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성동소방서 응급대원을 강사로 초빙해 응급처치 및 지하철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선발된 491명의 안전단 인원들은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33개 역에 배치되어 승강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2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

공사와 개발원은 각 역사 소재지 관할 복지관과 협업해 인력 교육, 안전용품 및 휴게공간 제공 등 각 역사에 배치된 안전단 인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사업은 승강기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ESG 경영에 기여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미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노인일자리와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앞으로도 보다 더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계획 발표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념에 이르는 경북형 교실 수업!

경북교육청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계획은 학생 주도형 수업과 생성형 AI, 에듀테크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질문 기반 수업과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질문 능력 신장 △학생 질문 기반 수업 실천 △질문 기반 수업 나눔 확산 등 총 4개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먼저,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에 힘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도 지정 연구학교(1교)와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8교)를 중심으로 교과 중심 수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문 수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팀(1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단위 학교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질문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의 장을 확대한다.

교과 수업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용(3~6학년)'질문 공책'을 보급하여 학생들의 질문 생성 능력을 향상하고, '질문 공책 활용 사례' 공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배움의 깊이를 나누는 학교 단위 학생 질문 축제, 교육지원청 단위 사제동행 질문 대회, 도 단위 사제동행 질문 대축제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 교육청은 도내 전 초등학교에 질문 기반 수업을 정착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주도의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은 교실 수업 혁신의 새로운 변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질문 기반 수업 교실 문화 정착으로 경북형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연수회 개최

봉화교육지원청은 2월 19일 봉화 지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강사 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를 개최했다.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단위에서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방과후학교 업무 개선 사업이다. 2024년에는 관내 초·중학교 21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 되며, 특히 K-베트남 밸리에 대비한 베트남어 방과후프로그램을 2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안전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복무 및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내를 했으며, 특히 청렴이행서약식을 통해 청렴한 방과후프로그램운영을 다짐했다.

봉화교육지원청 권혜자 교육장은 "봉화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방과후수업에 임하여, 학생의 특기 적성 개발과 도시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경북교육청, 2024년 제1회 경상북도교육장학회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이사장 임종식)는 도 교육청 행복지원동 301회의실에서 장학회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장학회 결산, 기본재산 정기예금 가입, 이사 연임, 정관변경 등에 대한 심의와 2024년 장학회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장학금 기탁은 14건, 6억 2,901만 9천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장학회는 2023년도에 △도내 국가유공자 후손 △선행 학생 △경북교육을 빛낸 학생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등 총 232명에게 1억 3,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임종식 이사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장학금 기탁이 많이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는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여주교육지원청, 2024년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2월 19일, 20일 양일간 관내 학교 현업업무종사자 217명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 강화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직무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종합결과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학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했다.

한관흠 교육장은"현업업무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학교 현장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업무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부산시교육청, 다양한 놀이 활동 통해 초등 1학년 한글 익힘 돕는다

'한글로 놀이하고 터다지고' 개발·보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입학하는 초등 1학년의 한글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 책임교육 지원 자료 '한글놀이터(한글로 놀이하고 터다지고)'를 관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료는 1학년 국어과에 신설된 '한글 놀이' 단원의 보조자료로 개발한 것이다. 다양한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한글의 기초를 다져,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1, 2학년군 국어 시수를 34시간 증배해 한글 해득과 기초문해력 교육을 강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이 자료를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자료 개발을 위해 수석교사, 교사 등 10명으로 '한글문해교육 연구회'를 꾸렸다. 연구회는 놀이·체험 연계 사례 중심의 한글 교육 연구 활동과 학교 현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료는 '글자와 친해져요' 등 17개 주제별 활동 중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나의 주제를 2차시로 분량으로 마련해 '한글 놀이' 단원 34차시 학습과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선 긋기 활동을 통해 글자 쓰기 소근육 발달, 획을 긋는 방향, 연필 잡는 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감 감각, 뇌와 손의 협응력, 색채 감각까지 키워줄 다양한 주제를 자료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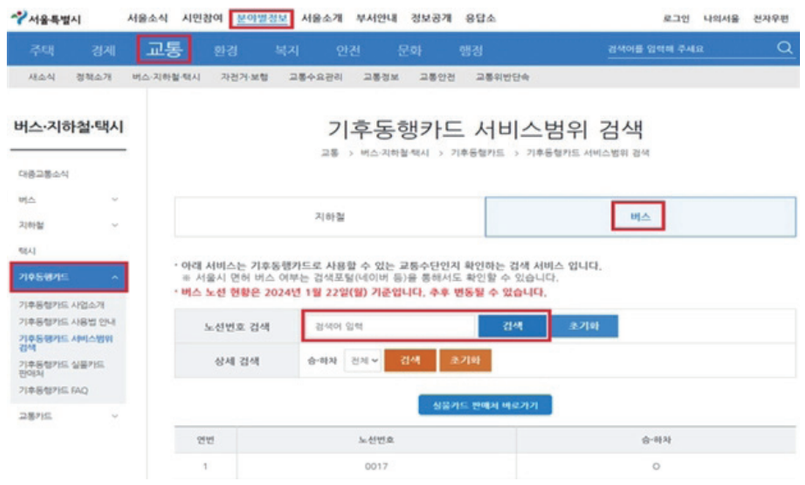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글 책임교육을 위해 다양한 한글 교육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보급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서울시, 경기도민도 서울버스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무제한 교통혁신 누리세요

광역버스 대비 가격 경쟁력 높은 서울버스, 고양·광명·성남·안양 등 경유 노선 이용 시 더욱 도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 절감 등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김포·남양주·부천·성남·안양·양주·의왕·의정부·파주·하남 등 경기지역 생활권에도 운행 중인 만큼, 정시성이 높은 서울버스와 서울 지하철,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기동카' 활용 시 경기도민의 혜택 체감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월 27일 출범 이후 누적 현재 약 42만장이 판매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경기도 관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이른바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고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를 타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면허버스면 시내·마을·심야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버스 이용 시에도 제약 없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현재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 등 총 111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을 추진한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도 포함된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인가 노선 총 385개 중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노선은 29%(111개 노선)이다. 서울 주요 도심 등을 경유하며 출퇴근 등 이동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경기 등 수도권 통근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을 시작한 맞춤 노선인 '서울동행버스' 중 서울02번(김포풍무~김포공항역)·04번(고양원흥~가양역)·05번(양주옥정~도봉산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111개 노선의 일평균 선·후불 교통카드 승·하차건수는 391,802건이나, 같은 기간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률은 약 1.6% 수준, 사용건수 합계는 69,83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하고, 경기도 관내 운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버스 노선 안내를 통해 서울권 생활 경기도민들에게도 무제한 대중교통의 우수한 혜택과 효과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기간 해당 노선에서 기후동행카드는 69,833건 사용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해당 노선의 전체 교통카드 사용량인 4,309,820건의 1.6% 수준이다. 다양한 홍보 채널에서의 안내를 통해 더욱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버스의 경우 카드 및 현금 승차시 요금이 3,000원인 반면, 서울시 면허로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제 적용 없이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환승할인까지 적용돼 광역버스 대비 경쟁력이 높다. 이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라면 월 6만 2천원(지하철+버스), 6만 5천원(지하철+버스+따릉이)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 출퇴근 시 경기권 내 서울 버스 탑승 및 서울 도심권 지하철 하차 등을 통해 활용하고, 저녁 및 주말 나들이에는 도심권 시내버스 및 심야버스, 따릉이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티머니 모바일 카드를 이용할 경우 태그 시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태그하면 되므로 편리함도 더해진다. 무제한 요금 혜택인 만큼 동일 노선 환승 시 추가 요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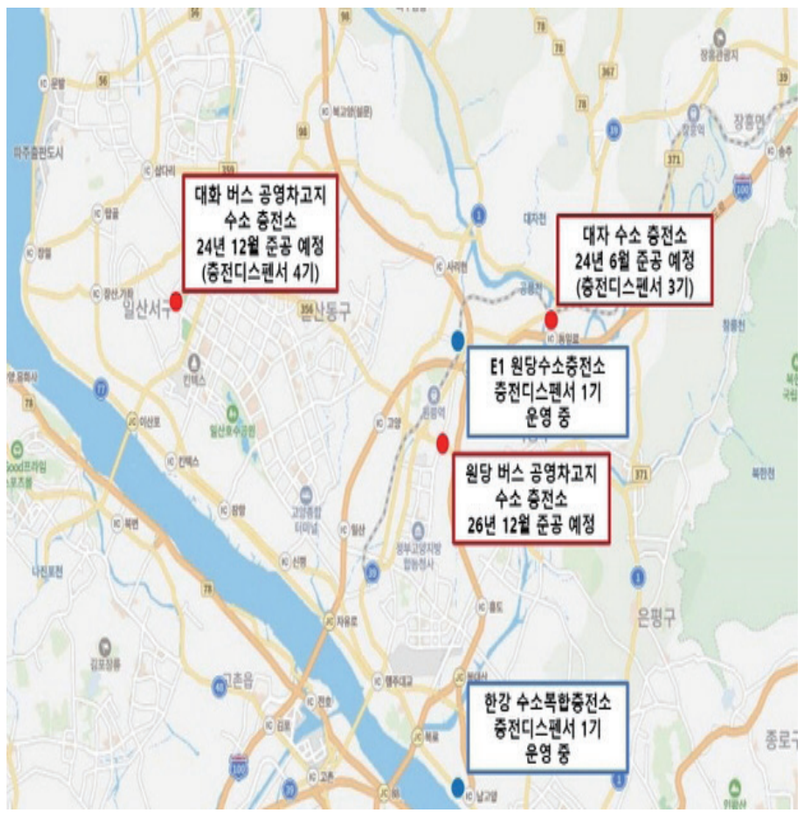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에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와 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 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 및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지자체 확대를 위한 협의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버스는 광역버스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매일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할 시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후동행카드는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구현하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위해 선보이고 있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고양특례시, '수소 대중교통 시대' 본격화...탄소중립 실천 도시로의 도약

2024년 대화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대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 대중교통 시대' 본격화에 앞장서며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2026년 말 준공예정인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23년 8월 SK E&S(에스케이이엔에스)와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액화수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수소버스 300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설치될 액화수소충전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 SK E&S(에스케이이엔에스) 40억 원 등 총 110억 원이 투자되고 고양시는 충전소 부지를 제공한다.

현재 고양시에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2곳의 액화수소충전소가 있지만 2024년에 2곳, 2026년에 1곳을 추가 설치 할 예정이다. 이는 고양시 전체 수소 차량이 약 397대인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수소충전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유는 수소 차량이 가진 많은 장점 때문이다.

수소차는 대기 중 산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만든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깨끗한 산소를 결합시키기 위해 설치된 여러 필터를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배출가스 대신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특히 공영차고지에 공급될 액화수소는 수소를 영하 253°C 극초저온으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것으로,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용량이 8~10배로 대용량 저장·이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버스·트럭 등 대형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과 수소차량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안에 수소 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32대의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 101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충전소 구축 시점과 연계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민·기업·공공기관 등에 수소 승용차 12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안에 대화버스공영차고지와 대자 수소충전소 부지 두 곳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친환경 수소 버스·승용차의 확대 보급에 대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수소 차량 운행으로 도심 대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친환경 버스·승용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 전북도 새만금에 1,800억원 투자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들 속속 착공으로 기업 진출 가시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바탕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최적의 공급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새만금산단 1공구(오식도 산 38-5)에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앤드림의 생산공장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공사개요 및 경과보고, 대표이사 인사말, 주요내빈 축사, 시삽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 착공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에코앤드림 김민용 대표이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업은 2022년 9월 30일에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새만금산단 제1공구 약 14.8만㎡(4만 4천평)에 1,8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고 45명의 인력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본래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생산기업으로 출발한 ㈜에코앤드림은 2008년부터 이차전지 양극활 물질 기술개발을 통해 최근 대규모 전기차용 하이니켈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요 이차전지 소재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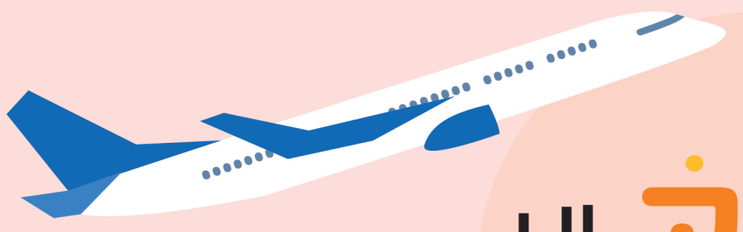
올해 초 청주공장에서 전구체 생산을 시작으로 생산 물량을 확대하여 새만금에 1,800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구축하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전북 새만금에서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생산의 독보적인 기업 역량을 통해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무사히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재들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전구체는 배터리 4대 물질 중 하나인 양극재의 선행물질로 업계에서는 양극재 기업의 생산능력 대비 전구체 공급 부족이 예상돼 증설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구체는 국내 생산비중이 13% 수준에 불과해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전구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는 이차전지 분야의 안정적인 밸류체인 형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남출/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